

이재명 ‘정권심판’ 선명성 내세우며 굳히기 주력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 ‘통합·성장’ 중도층 겨냥 김문수엔 윤 아바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 투표까지 남은 기간 ‘정권심판’을 앞세워 우위 굳히기에 들어갔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 심판론으로 선명성을 내세우는 동시에 ‘통합과 회복 성장’을 한층 부각하는 전략을 이어갈 보인다.

이 후보는 우선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며 우위 굳히기에 주력할 전망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계엄·탄핵 정국에 이어 조기 대선 정국이 쉽 없이 펼쳐지며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다잡을 필요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가 대선 레이스 막판 더욱 선명한 발언들을 쏟아내는 것도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 캠프 내에서는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후보의 연설 등 발언을 줄여야 한다는 분위기도 있었으나, 이 후보는 오히려 유튜브 출연을 추가로 잡으며 발언을 늘리고 있다.

기성 언론 매체보다는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택해 반복적인 메시지를 발신하며 세 결집을 하

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동시에 경제와 안보 등 정책 면에서 실용주의적 면모를 부각하고 있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으려다 실패한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거나, 경제는 민주당이 더 잘한다며 “코스피 5,000시대를 만들겠다”는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민의힘에 실망했거나 반이재명 우려에 마지막까지 결정을 유보한 채 투표에 소극적인 중도·부동층을 한명이라도 끌어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민생·경제·외교 회복을 위해 내란 종식은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내란 종식과 민생·경제를 동시에 외치는 강운 전략이 전통적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도 충분히 소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일관된 기조를 이어가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인물론을 부각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선 당 대표를 역임했고 특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석패한 뒤 여러 부침을 겪으며 한층 성숙한 ‘유능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각인하는 전략이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내란 옹호’, ‘윤석열 아바타’라고 규정하며 차별화를 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면서 남은 기간 이같은 공세가 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일 대구시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욱 거세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사전투표가 평일에 치러졌음에도 비교적 높은 투표율을 기록한 것은 정권 심판 열망이 담겨 있다고 보고, 막판 보수 결집을 경계하며 투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총력전을 펼 방침이다.

선대위 관계자는 1일 “끝까지 절박하게 각 지역 현장에서 국민 한 분 한 분을 만나 내란 종식과 경제·국격,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투표해 달라고 호소하는 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1일 경기도 화성시 동안호수공원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리박스쿨’ 여론조작 의혹에 “선거부정 댓글 내란”

“학생 상대 교육내란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1일 보수 성향 단체 ‘리박스쿨’의 댓글 여론 조작 의혹에 대해 “국헌 문란 댓글 내란 사건”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주재한 긴급 본부장단 회의에서 “불법으로 선거 결과를 조작하려는 이번 사건을 우리는 선거 부정 댓글 내란 사건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윤 본부장은 “이번 사건은 이명박(MB) 정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박근혜 정부 국정교과서 사태의 종합판이

라 할만한 심각하고 충격적인 국헌 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이해 “수사기관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추악한 범죄행위를 사주굴근(줄기를 자르고 뿌리를 파낸다는 뜻)의 자세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당에도 진상 조사 기구 설치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의원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극우 역사관을 주입하는 흉악하고 악질적인 교육 내란 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부 내에 리박스쿨의 뒤를 바누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주호 대통령 권한 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겨냥해 “이 권한대행의 정책자문관이 리박스쿨 대표를 장관 정책자문위원에 추천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국정조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진실을 밝혀겠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선대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리박스쿨에 자신의 머니더 양메리 씨가 강사로 있었던 전광훈 목사는 물론, 늘봄학교 확대를 공약한 김문수 후보 역시 리박스쿨 게이트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전광훈-김문수-리박스쿨의 검은 관계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서도 막판 표심잡기 총력전

각 정당 주요 거점 집중유세 혁신당, 민주 지원사격 나서

6·3 대선 전 마지막 주말, 각 정당들은 광주·전남 주요 거점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전을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는 1일 오전 교회, 성당, 절 등 종교 시설을 찾아 투표를 독려하고 지역위원회별로 거점 유세에 나섰다.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회는 상무시민공원, 5·18기념공원, 무각사 산책로, 양동천변로 등에서 환경정화활동을 펼치며 표심을 공략했다.

동남을 지역위원회는 이른 아침부터 무등산 증심사 입구에서 집중 유세를 펼

쳤고, 북구를 지역위원회는 선거운동원과 자원봉사자로 200여명이 참여한 ‘골목경청단’을 꾸려비엔날레, 시립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유세활동을 이어갔다.

민주당 전남도당도 이날 오전 나주 농협 앞 남평장을 시작으로 곡성 뚝방마켓, 담양 죽녹원 등지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은 지역구인 해남 등을 찾아 지역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이날 오전 북구 우치공원을 시작으로 오후 광산구 어등대로 사거리에서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전남도당 역시 광양 오일장을 시작으로 보성 율포해수욕장, 담양 죽녹원 일대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했다.

이정현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번 대선은 시끄러웠던 소수 이

재명 대세론과 조용한 다수 국운상승론의 대결로 결판날 것이다”며 “선거운동 막판 호남의 분위기는 침묵하는 30%의 인들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확신이다. 그 분들은 국민의힘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는 생각에 김문수 찍겠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지원사격에 나섰다. 김선민 권한대행과 서왕진 광주시장위원장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하늘마당 앞에서 민주당 광주시당 유세에 동참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이날 오후 광주 북구 문화사거리를, 전남도당은 같은날 무안 읍장 일대를 찾아 권영국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줄 것을 호소했다. 김용현 기자

대선일 어르신·장애인 투표소까지 차량지원

21대 대통령선거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등 이동약자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책이 시행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6조 2항에 근거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

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지역 선관위는 투표소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동약자를 배려했으며, 사전투표일(5월 29~30일)을 비롯해 본투표(6월 3일) 당일까지 총 3일간 차량 제공 등을 통해 투표소까지 원활한 이동을 돕는다.

유권자 거주지에서 투표소까지 왕복 운행하며 차량당 1명씩의 활동 보조인이 배치돼 차량 탑승부터 하차, 투표소까지 이동 등 전 과정을 돕는다.

다만 이런 보조 인력이 기표까지 도우려면 별도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7조에 따라 시각 또는 신체 장애로 인해 스스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지명 절차는 사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즉시 지명해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 투표소는 가급적 1층이나 경사로가 마련된 곳에 설치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도 투표소에서 지급한다. 연합뉴스

무소속 황교안, 후보 사퇴…김문수 지지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1일 후보직 사퇴 및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후보는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서 “마지막 힘을 총집결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를 돕겠다. 김 후보가 하는 일을 지지하겠다”며 “사퇴하고 김 후보를 도와서 반드시 정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과제가 부정 선거를 막는 일”이라며 “다행히도 김 후보는 부정 선거를 고치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한 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절체절명의 과제는 이재명이 당선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이라며 “반국가 세력과 싸울 수 있는 후보도 김 후보다”고 부연했다. 서울=김현수 기자

자연정수기간

40

YEARS

자연에서 40년을 거르고 걸러
신선하고 건강해진 백산수

좋은 물은 오래 걸립니다

천 지 차 이
백산수